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인천 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연평도 포격사건 민간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스님이 희생자 고 김치백 씨의 아들 김영모 씨를 위로하고 있다. 김형주 기자

“얼마나 황망하시겠습니까”

총무원장 자승스님, 연평도 주민 위로
유가족 “장례 치르게 도와달라” 요청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연평도 포격사건의 군장병 희생자를 조문한데 이어 민간인 희생자와 피난주민을 찾아 위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1월30일 연평도 포격사건 민간인 희생자인 고(故) 김치백, 배복철 씨의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인천 길병원 장례식장을 조문한 뒤 피난주민의 임시거처인 인스파윌드를 찾아 피해주민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길 당부하며 위로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날 오후 2시30분 길병원의 민간인 합동분향소를 찾아 분향과 묵념을 한 뒤 유가족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얼마나 황망하시겠습니까"라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고 김치백 씨의 아들 김영모 씨는 총무원장 스님의 손을 붙잡고 "정부가 하루속히 문제해결에 나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유가족의 고

충을 들은 뒤 "인천시와 정부에 유가족들의 뜻이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10분 뒤 합동분향소에 도착한 송영길 인천시장에게 "유가족들이 하루속히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행정안전부와 장례와 보상에 대해 논의가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만큼 저도 최선을 다할테니 총무원장 스님께서도 정부측에 유가족의 뜻을 전해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또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영구 이주를 원하는 연평도 피해주민이 임시거처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피해 주민들이 임시거처에 불편함이 없도록 어린이들은 강화 전등사에, 성인들은 국제선센터 등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할 테니 피해주민들의 불편함을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총무원장 스님은 연평도 피해주민들의 임시거처인 인스파윌드를 이날 오후 3시10분 방문해 연평도 피해주민들을 위로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최성일 연평도 주민비상대책위원장 등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주민들이 영구 이주를 원할 만큼 큰 물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데 대해 어떤 위로의 말씀을 건네야 할 지 모르겠다"면서 "영구 이주문제와 더불어 임시거처 마련에 힘을 보탬 수 있도록 정부 측에 주민들의 뜻을 전 하하고 전등사 등지에도 머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조문과 피해주민 위로 방문에는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 성월스님, 사회부장 혜경스님, 호법부장 상운스님, 사서실장 경우스님,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스님 등이 함께했다.

인천=박인택 기자

문수스님 선양사업회 발족한다

11월30일, 발족 위한 준비모임 가져
내년 1월 목표...준비위 실무위원 선출

4대강 사업 중지 및 서민을 위한 정지를 촉구하며 지난 5월 소신공약한 문수스님의 유지를 계승하기 위한 선양사업회가 발족한다. 사회부는 지난 11월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선양사업회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문수스님 소신공약 선양사업회(가칭)' 발족을 위한 준비 위원회를 꾸렸다. 공동 준비위원장으로서는 총무원 사회부장 혜경스님과 중앙승가대 동문회 사무처장 정산스님을 추대했다. 이어 군위 지보사 주지 원범스님,

사회부 사회국장 묘장스님, 중앙승가대 동문화 사무국장 범상스님,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및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에서 추천하는 2~3명의 재가활동가 들을 실무준비위원으로 꾸렸다. 준비위원회 간사는 박정규 사회부 팀장이 맡기로 했다. 준비 위원회는 내년 1월 선양사업회 발족을 목표로 조직체계를 구성하

고 대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선양사업안들을 꾸릴 계획이다. 선양사업회 발족에 앞서 12월 중순께 전체 준비 위원회 회의를 갖고 향후 활동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화쟁위원장 도법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모순과 부조리에 맞서 마지막을 불태운 스님의 뜻을 어떻게 사회에 구현할 것인가가 우리의

책무"라며 "국민들의 가슴속에 문수스님의 고결한 뜻이 영원히 남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사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는 화쟁위원장 위원장 도법스님, 중앙승가대 총동문화장 원정스님,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진관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표 퇴휴스님, 사회부 사회국장 묘장스님, 재무부 재정국장 각운스님, 류승무 중앙승가대 교수, 현희련 에코붓다 사무국장, 홍지연 한국대학생불자연합회 지도위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홍다영 기자

법일스님 청구심판
‘인용’ 결정

법규위 전체회의서

법규위원회(위원장 성천스님)는 지난11월29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법일스님(대전사 주지)이 제기한 승려법 위반 청구 심판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법규위원회는 법일스님이 청구한 '구족계 미수지자를 판단한 총무원장 명의, 총무부장 전결의 회신은 승려법 위반'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심판 청구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청구 심판은 표결 결과 7대 1로 인용이 결정됐다. 지난 10월 제15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법일스님은 중앙선거위 자적심사 과정에서 탈락한바 있다. 법일스님은 이같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규위원회에 삼판 청구를 제기했다. 이성수 기자

“도발 행위 즉각 중지”

전태종, 연평도 포격관련 논평

전태종 총무원장 정산스님은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 “도발행위의 즉각 중지”를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정산스님은 지난 11월26일 발표한 논평에서 “무력을 앞세운 연이은 도발은 한반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북한은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도발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한·일 불교계 우호관계 긴밀하길...”

총무원장 자승스님
일본 불교 대표단 환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일본 정토진종 부원장 하야시 스님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기념선물을 건네고 있다. 신재호 기자

우호를 다지는 ‘청년의 날’ 행사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정토진종은 일본에서 가장 많은 신도와 더불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일 불교계가 더욱 더 긴밀한 우호관계를 이뤄나가

우호를 다지는 ‘청년의 날’ 행사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정토진종은 일본에서 가장 많은 신도와 더불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일 불교계가 더욱 더 긴밀한 우호관계를 이뤄나가

길 기대하며, 종조 추모다례제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예방에는 일본 정토진종 총무원 교육부장 다케이 스님과 조계종 국제교류위원 보광스님, 조계종 총무원 사서실장 경우스님, 사회국장 묘장스님 등이 배석했다. 박인택 기자

쌍계사 주지후보에 성조스님 선출

11월26일 산중총회서

제13교구본사 쌍계사 주지후보에 성조스님이 선출됐다. 쌍계사는 지난 11월26일 산중총회를 열고 단독 출마한 고성 윤흥사 전 주지 성조스님<사진>

을 쌍계사 주지후보로 선임했다. 쌍계사 신임 주지후보 성조스님은 정대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3년 건봉사에서 승수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5년 범주사에서 석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각각 수지했다.



석남사 주지와 총무원 사회부장, 총무원 사서실장 등을 역임하고 고성 윤흥사 주지 소임을 맡아왔다. 권순학 경남서부지사장 gyonam108@ibulgyo.com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관할세무서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아 비영리법인 고유번호(000-82-00000)를 발급받은 사찰에서는 법인 또는 개인이 기부(시주)한 금액이 법인세법 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등에 의거하여 기부금을 손금(비용)처리 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법인 또는 개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112조의2 및 소득세법160조의3에서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액수에 관계없이 (2010.01.01 이후 발급분부터) 기부한 개인별 또는 법인별로 발급명세서(또는 발급대장)를 작성하도록 하고,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발급명세서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 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를 해당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부금 영수증의 발급명세(발급대장)를 작성, 보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법인세법 76조 및 소득세법 제81조에 의거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구본사 및 소속사찰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부당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차단하고 투명한 기부문화를 제고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음

- 관할세무서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아 비영리법인 고유번호(000-82-00000)를 발급받은 사찰에서만 기부금영수증 발급가능
 - ①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사찰확인원’을 요구할시 확인원은 교구본사에서 발급 가능.
 - 다음 사항이 기재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를 작성·보관(발급한 날로부터 5년)할 것 (법인세법112조의2 및 동법시행령 155조의2, 소득세법 16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208조의3)
 - ①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기부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소재지)
 - ② 기부금액
 - ③ 기부금 기부일자
 - ④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 회계장부에 기재된 기부금액(공란 발급 금지)과 일치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며, 발급한 영수증 사본은 반드시 사찰에 보관할 것.
 - 기부금영수증은 총무원에 등록된 사찰직인을 사용하며, 기부금액을 반드시 기재하여 위조 또는 매매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것.
 - 문의 : 총무원 재무부 02)2011-1756
- ※위와 관련된 서식은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중무자료실-재무부에서 다운 받으실수 있습니다.